"궤도차 타고 남북한 오갔으면…"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국보 63호).

■ 땅속에서 전쟁 치른 철조비로자나불

신라철불…조각미 탁월 '기도 성취' 영험담 많아

통일신라시대의 대표적 철불로 능숙한 조각과 조형수법이 돋보이는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국보 63호). 9세기 후반 불상의 한 전형을 정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높이 91㎝의 이 불상은 전쟁 때문에 영영 그 자비로운 미소를 중생들에게 현현치 못할 뻔 했다. 한국전쟁 동안 땅속에 묻혀있었기 때문이다.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나자 당시 스님들이 소실을 우려해 화개산 자락에 묻어 두었던 이 불상은 1957년에야 제15사단장 이명재장군에 의해 발견되었다. 치열한 격전으로 소실된 도피안사는 1959년 이명재장군이 중수해 군에서 사찰을 관리하다가, 1985년 조계종에 사찰관리권이 이관되어 현재는 복원불사로 여념이 없다.

전쟁 직후 이 장군은 이 곳이 절터인 줄 모르고 대대본부를 설치했다가 사고 등 우환이 끊이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러던 중 꿈에 비로자나 불상이 나타나 당신을 땅에서 꺼내 사찰을 중건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으며, 대대장 역시 같은 꿈을 꾼 것을 알고 불상을 찾게 되었다.

이 세상에 충만한 '진리 그 자체(法身)'를 조형화한 이 불상은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특이한 상서가 많이 따른다고 알려져 있어 참배자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장군 진급, 고시 준비생 등에게 영험이 많다고 한다.

유서깊은 도피안사에서 기행단은 천년이 지난 철불 좌대를 어루만지며, 통일신라의 불국토가 이 시대에 재현될 것을 진심으로 발원했다.

불교문화 체험기행 6월

6·25 격전지를 찾아

6·25 한국전쟁 발발 48주년을 며칠 앞둔 21일. 25명의 불교문화체험기행단은 한국전쟁 당시 최대의 격전지였던 강원도 철원지역으로 떠났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의 전적과 비무장지대를 둘러봄으로써, 다시는 동족간의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각오를 다지며 분단의 아픔을 체험했다. 또한 민통선 인근에 위치한 화엄도량 도피안사와 생지장도량 심원사, 6사단 군법당 청원사 등 3사순례를 통해 호국불교의 힘으로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원했다.

◇ '철의 삼각 전망대'에서 기행단이 비무장지대 및 북한 지형을 모형지도로 살펴보고 있다.

기행단이 먼저 찾은 곳은 남북한 냉전을 상징하는 제2 땅굴.

1975년 3월19일 야간근무중 한 초병이 지하에서 나는 폭음을 듣고 발견했다는 이 땅굴은 1시간에 중무장한 3만명의 병력을 이동시킬 수 있다는 기습남침용 지하 통로. 견고한 화강암층에 지하 160m 깊이에 3㎞까지 파고 들어 온 북한군의 집요함이 일행을 놀라게 했다.

"동족의 그늘은 시원하도다. 석가 종족은 부처인 나를 낳았으니 석가족은 모두 나의 가지요 잎이라. 그러므로 나는 이 나무 밑에 앉았노라"(증일아함경). 기행단은 하나 같이 동족을 세번씩이나 외침에서 구하기 위해 안타까워 하신 부처님의 동족애를 떠올렸다. 장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통일소' 기증으로 무르익고 있는 동족 화합의 분위기가 민족통일의 연꽃을 피우길 발원했다. 견학온 초등학생들은 군사분계선 300m 지점에 놓여 있는 땅굴속 레일과 궤도차를 보고 "통일이 되어 이 궤도차를 타고 남북한을 오가면 재미있겠다"고 한 목소리.

이어 도착한 곳은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표어로 유명한 월정리역과 '철의 삼각 전망대'. 남방한계선 철책을 넘지 못하고 끊어진 월정리역은 서울 원산을 잇는 경원선의 한 간이역. 한국전쟁 당시 폭격으로 부서진 열차의 잔해가 앙상하게 남아있어 분단의 비극을 더욱 실감케 한다.

만리장성처럼 철원평야를 감싸고 휘감아 도는 대전차방벽에 우뚝 선 '철의 삼각 전망대'에서는 북녘땅이 한눈에 들어온다. 눈앞에 '김일성 고지'와 '괴의 능선'이 바라다 보인다. 그 앞에 펼쳐져 있는 비무장지대. 여유있게 노니는 10여 마리의 해오라기가 유난히 평화롭다.

지구상에 남은 최후의 냉전지대. 남북의 철조망 사이에 강처럼 놓여있는 고요하고도 아름다운 자연생태계가

월정리역 녹슨 철마 "북녘산하 달리고 싶다"

백마고지 지옥의 전장터…숨진원혼 왕생기원

도피안사·심원사 선열 희생 기리며 영가천도

'전쟁과 평화'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온갖 희귀조와 야생동물의 안식처가 되고 있는 이곳이 통일후에도 자연공원으로 남아 평화의 상징이 되길….

남방한계선을 따라 5분 정도 서쪽으로 달려 백마고지에 도착했다. 1952년 10월 6일~15일 열흘동안 고지주인이 24번이나 바뀌고 중공군 1만4천여명 등의 사상자를 낸 세계 전사(戰史)상 유례가 없는 전쟁터. 지금도 나무가 듬성듬성 나있을 정도여서 그때의 참상을 웅변하고 있다. 일행은 백마고지 전적비에 헌화하고 억울하게 숨진 원혼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전적지는 인근에 위치한 노동당사. 해방후 5년간 공산치하에서 주민들을 탄압하던 곳. 철원, 김화, 평강, 포천일대를 관장하던 이 곳은 1개 리당 8백 가마의 쌀을 착취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고문하던 곳으로 악명 높다. 2년전 원혼들이 자주 출몰해 건물 뒤쪽 방공호의 땅을 파보니 수많은 인골과 실탄, 철사줄이 발견되어 초소를 폐쇄했다고 한다.

일행은 가슴 시린 6·25 격전지를 뒤로 하고 철원군 동송면 화개산에 위치한 도피안사로 순례를 떠났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민간인 통제구역' 속에 위치한 관계로 일반인의 출입이 입지 않았던 도피안사. 일행은 모든 중생을 피안의 해탈세계로 건너게 한다는 '도피안(到彼岸)'이란 절 이름 처럼 우리 민족이 상호불신의 강을 건너 통일 불국토에 도달하게 되길 기원했다.

점심 공양후 도피안사(주지 도견) 총무 정예스님이 호국사찰인 도피안사의 유래에 대해 설명한다.

"이 절은 865년(경덕왕 5)에 처음 산문을 열었어요. 도선국사가 향도 1천5백여명과 함께 이 절을 창건해 철조비로자나불좌상(국보 63호)을 봉안하고 삼층석탑(보물 223호)을 건립했습니다. 도선국사는 이 절을 비보국찰(裨補國刹) 중의 하나로 삼았습니다. 화개산이 물에 떠 있는 연약한 연꽃의 모습이기 때문에 석탑과 철불로 산세의 약점을 보완해 국가의 내실을 다지고 외세의 침략에 대비했다고 합니다."

철원평야를 가로지르며 도착한 곳은 동송읍내에 위치한 제6사단 군법당 청원사. 군종병 정석한 상병을 전적지 안내자로 미리 보낸 손기무 군법사가 일요일 법회를 마치고 와 반갑게 맞았다. 사병들에게 초코파이와 롤라를 선물한 일행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감사의 뜻으로 일행을 위해 정성껏 기도를 해준다. 기행단도 법사의 염불에 맞춰 일심으로 귀명정례하며, '민족통일기원 삼사순례'의 의미를 되새겼다.

3사순례의 최종 코스는 생지장도량으로 유명한 심원사. 720년(성덕왕 9) 사냥꾼 이순석(李順石)이 사냥을 나가 멧돼지를 향해 화살을 쏘았으나 돼지는 보이지 않고 어깨에 화살이 꽂힌 지장보살석상을 발견하고 깨달음을 얻어 출가했다. 그 뒤 그는 우리나라 제일의 지장성지인 석대암(石臺庵)을 창건했다. 그러나 6·25전쟁과 함께 석대암은 폐허가 되었다. 지장보살상도 실종이 되어 행방이 묘연하던 것을 한 불자가 찾아내 심원사에 봉안하게 되었다 한다.

심원사 주지 영도스님은 관명진언(光明眞言)을 외우며, 6·25동란 당시 전사한 원혼 등 억울한 영가를 천도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다. 영도스님은 심원사를 참배한 일행에게 "천지만물이 하나라는 생각으로 조상을 공경하고 매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루어 지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고 법문했다.

'통일기원 삼사순례'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평일인지 전혀 막히지 않았다. 통일의 길도 오늘처럼 시원하게 뚫리면 얼마나 좋을까.

글=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월정리역에 놓여 있는 '폭격으로 부서진 철마(鐵馬)'. 철마가 부활해 다시 달릴 날은 언제일까.

◇진혹한 고문이 행해진 노동당사의 전해가 흉물스럽다.

건·강·보·조·식·품·허·가

몸을 다스리는 (治身)

자·연·건·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제가(齊家:집을 다스림)·치국(治國):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첫째 수(壽:건강과 장수)·둘째 부(富:부와 귀)·셋째 강녕(■:편안함)·넷째 유호덕(攸好德:덕을 좋아함)·다섯째 고종명(考終命: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불로화정(不老化精)·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등 「치신(治身) 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선산(三神山) 중 방장산(방장산)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 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不老化精)

신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간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염자(검은 깨)와 감식초 외 10여종의 첨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격

불 로 화 정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40만원(2개월분)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

장생불사하면서 신에 사는 사람의 신선(神仙人)의 주식(主食)은 사계절에 푸른 소나무에나 소나무의 놀라운 효능은 이제 말로 다 할 수 있으랴.

나무는 자기 몸을 불태워 없앰으로써 불을 생(生)해가 (五行相生의 수생화중의 나무의 소나무는 동방(東方:五行의 三八木)의 나라인 한국을 대표하고 상징한다.

사찰 및 민간의 비전(秘傳)된 많은 처방을 아는 여래치신(치신) 자연건강종합식품회사를 경영하는 시연스님과 지리산에서 30여년간 소나무만을 연구한 토종자 소나무영업장주(東鄕主)가 힘을 합쳐 만든 소나무자연건강강정(强精)종합식품이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이다.

「솔효소정액」은 솔잎·솔순·솔씨방·솔마디·송화가루·송진·송근백피·송목피·송이버섯·백령령·적복령·백복신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덩어리인 조선소나무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당귀·감초·표고버섯·흑설탕 기타 여러가지 첨가식품을 배합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발효 숙성시켜 수천종류의 식물성 효소와 미생물 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낫게 하여 병의 예방도 하여 정(精)·기(氣)·신(神)이 왕성하게 하는 기적의 슬강정종합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감이 없이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여러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든 것이며,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이 먹는 작은 알갱이로 된 선식(仙食)으로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으며 3개월 정도만 먹어도 비만체중 20㎏ 이상이 빠지는 다이어트 식품이고 성인병과 난치병의 예방 및 치료와 특히 당뇨병에 효력이 있으며 몸일 날아갈듯 가벼워지고 후유증도 없는 기적의 슬강식품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혈관계통의 질환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간염,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소에서 품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 번호(「솔효소정액」 96.57796호, 「솔선식」 96.5587호), 했으며 건강보조식품 허가 【98.3.31】를 받았으며 앞으로 우리 소나무 자연 건강강정종합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외화획득을 할 작정이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원액 2,800ml(700ml 4병,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호

솔선식(松仙食)
환약 1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호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 구입문의: 053)628-9145/053)655-2227/011)808-8880
◐ 입금구좌: 대구은행 033-07-172508 예금주:대구여래원